

# Golf Digest

THINK YOUNG / PLAY HARD

2014.02

정가 10,500원 02  
ISSN 2005-0119

**MONEY**  
GD 월드 머니랭킹 50  
억대 상금 번 한국 프로

**INTERVIEW**  
최장타자 팀 버크  
전진하는 김도훈

**COVER STORY**  
**박인비**  
골프를 말한다

필 미켈슨  
드라이버 샷  
노하우

**ESCAPE**  
하와이·아부다비

**STYLING**  
패턴 스타일링

## The player of the year

FEBRUARY 25, 2014

www.golfdiges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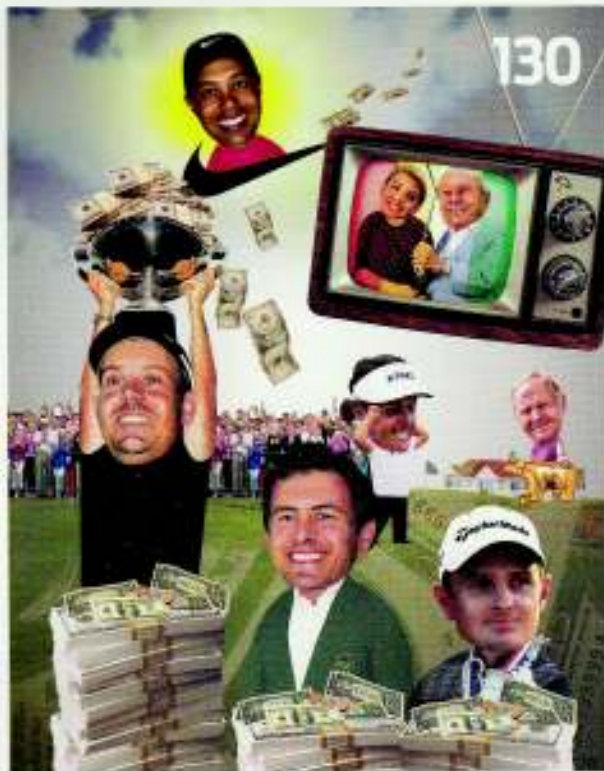
MONTHLY EDITION

Inbee Park Ranks #1  
in LPGA Rolex Ranking



**WORLD 100  
GREATEST COURSES**

2014년 세계 100대 코스



## PLANET GOLF

- 090 WORLD 100 GREATEST COURSES**  
세계 100대 코스
- 094 NEW PANEL, VOTE & RESULT**  
세계 100대 코스의 새 판 짜기
- 098 THE ADVENTURE OF A LIFETIME**  
일평생의 최고 골프 여행지
- 104 OLYMPIC VENUE IN DELAY**  
2년 뒤 리우올림픽 코스

## FEATURE

- 130 CASHING IN**  
골프계 머니 랭킹 50
- 134 2013 KOREAN TOUR EARNINGS**  
여자 프로, 남자보다 상금 2배
- 138 GOLDEN BEAR**  
황금 공의 핸드 프린팅
- 140 BOOK REVIEW 2013**  
지난해 나온 골프책 총정리
- 144 GOLF IN 2020**  
6년 뒤의 골프 미래상
- 146 BIG YEAR**  
2014년의 10가지 예상
- 148 STOVE LEAGUE BRAINSTORMING**  
4년째 맞은 스카이72 동계세미나

February 2014.



# Stove League

4년째 맞은  
스카이72 동계세미나

# Brainstorming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1월이면 국내  
골프장은 비수기에 접어들고 코스도  
한가해지지만,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리조트는 4년째를  
맞은 동계 세미나로 북적였다.  
타 골프장 직원까지 110여 명의  
수강생이 외국인 강사와 전문가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글\_남희영

**이**구나 축구 등 잔디에서 맘을 올리는 스포츠는 겨울이면 또 다른 시즌에 들어간다.  
골프 리그를 위한 인재를 발굴하고 새로운 스카우트 계약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또  
전지훈련을 통해 몸을 단련하는 등 휴식과 함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달군다는 의미  
에서 스토브 리그 Stove League라고도 불린다.

국내 골프장 업계는 겨울이면 내장력이 대폭 줄면서 휴장하는 코스도 많아진다. 물론 어  
떤 코스는 주말을 이용하는 위에서도 라운드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방학에  
들어가는 휴식의 계절이다.

18홀 4개 코스와 7홀 드림코스, 그리고 드림골프라운지를 운영하는 스키야72골프장 역  
시 겨울이면 번갈아 휴장하는 일수도 많아진다. 하지만 4년 전부터 동계 세미나가 생기  
면서 좀 달라졌다. 직원들의 코스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졌고, 코스 퀄리티가 서서히  
개선되어갔다. 그런 내장력의 반응에서도 나타났다. 여름이면 나이트골프까지 진행할  
정도로 분별지만 코스 상태에 대한 불평은 점차 줄어들었다. 겨울철 스토브 리그에서 한  
가비결이 있었던 건 아닐까 짐작한다.



2010년 12월 동계 세미나를 처음 시작할 때는 김영재 사장의 강연과 내부 세미나 정도에 그쳤다. 지나온 한 해의 코스 관리를 돌아보며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개선 사항은 무엇인지를 질문 답변하는 토론 다과회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는 어느 골프장에서 진행해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강의 형식을 갖추고 전문가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세미나의 체질 혁신을 시도했다. 시비 프로와 잔디 병리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3일간의 커리큘럼을 진행했다. 자체 직원 40명에 타 골프장 등 외부인사가 10명이 참석했고 반응도 좋았다. 그 다음에는 한국PGA의 경기위원을 초청해 홀과 코스의 관계에 대한 강좌를 만들거나 클래스를 두 개로 나눠 관심 있는 강의를 선택해 참여하는 방식도 시도했다. 매년 할 때마다 참가인원은 60명, 80명으로 늘었다. 스카이72 직원은 그대로였지만 수도권 주변 골프장에서 코스 담당자가 입소문을 듣고 참석했다.

### 코스 관리는 골프의 근본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동안 진행된 '2014 동계세미나' 기간에는 무려 11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절반은 외부에서 강의를 들으러 온 골프장 업계 종사자였다. 강의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했고, 각방면의 국내외 전문가가 초빙되었다. 외부 초빙 강사 비용은 스카이72가 부담했다. 이밖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설 잔디연구소가 주최하는 골프장병관리회를 참관하거나 인턴 매수, 정수처리장을 방문하는 등의 외부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동계세미나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이는 제임스 그램 프루사 James Graham Frusa 스카이72 코스팀 본부장이다. 제임스는 1968년부터 골프장에서 일했고 77년부터는 파사티엠펜코스 팀장을 거쳐 2005년부터 6년여를 일본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등 미국, 아시아 골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베테랑이다.

그는 아시아가 미래 골프업계의 가장 큰 시장이며, 그린커퍼의 전문성과 지식과 정보 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코스 관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

## Seminar Curriculum

### 2014 스카이72 동계세미나

장소: 스카이72 배다 클럽하우스 2층 대연회장  
일정: 1월17일~27일(기간 총 10일)

#### 1월17일

토양 분석과 골프 코스 관리 스카이72 & 마잉크(비연구소)  
보양 분석방법 현장 견학과 실습 스카이72 & 대정연(비연구소)

#### 1월20일

경기인식 대회 준비는 대일 스카이72 코스팀장, 조영희 한국PGA 위원  
코스관리자를 위한 디자인(순화 코스설계사)  
골프 코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제임스 프루사 스카이72 본부장)  
코스 정비 관리 스카이72 정비 팀

#### 1월21일

잔디 병상 관리(마이카 우즈 비육전(비연구소)  
화학 제품 실무 정비 측정(글렌 라이프 제임스 기술 매니저)  
농약 살포기 교육(양동중 레이아웃(프루사)인스)

#### 1월22일~23일

컨세스 한국골프장(비연구소)을 위한 잔디연구소 주최 참관

#### 1월24일

관계전문가 교육(존 브라이더 디자이너)

#### 1월27일

인턴 매수(제임스 프루사) 방문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동안 진행된 '2014 동계세미나' 기간에는 무려 11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1 동계세미나를 기획한 제임스 프루사 스카이72 코스팀 본부장  
2 지난해 가을 LPG대회 우승자 양희영과 함께 코스를 위한 스카이72 코스 팀



운 게 뭔지 아니라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코스 관리는 골프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린키퍼는 단지 잔디만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이다. 잔디와 기계, 시비, 토양, 관계, 비즈니스까지 서로 소통해야 한다. 스카이72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강사를 초청하는 등 재교육하는 동계세미나가 가능했다.”

국내 일부 골프장은 이미 선진적인 코스 노하우를 재교육하고 있지만 스카이72처럼 타 골프장에도 문호를 활짝 열고 코스에 대한 전문 교육에 투자하는 곳은 없다. 올해는 특히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골프산업 박람회 기간에 맞춰 강사를 초청해 시너지를 높였다.

세미나 실무를 맡은 김진 스카이72 코스팀 담당자의 말이다. “국내에서 코스관리자는 자신의 고유 영역과 지식과 경험을 혼자 가지고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4년간 동계세미나를 통해 외국의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의 노하우를 나눴다. 그 결과 코스관리 팀에 비로 노하우, 수량 조절, 잔디 깎기, 토너먼트 코스 세팅 등에서 반영되었다. 이전 사장님부터 팀원까지 모두 전문적인 자식을 가지고, 수시로 소통한다. 내장객의 좋은 평가로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 그는 세미나를 시



전세스 한국골프산업박람회의 전경

작한 뒤 터국의 골프연구소와 잔디 노하우를 교류한 성공 사례도 들려주었다. 우리와 다른 문화에서의 잔디 관리 사례와 해결책이 국내에서 해오던 타성을 잔디는 것이다.

### 지식은 나눌수록 익숙해진다

올해 세미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대학원 수업에 나올 정도로 수준도 높다. 스카이72는 매년 가을 국내 유일의 미국PGA 대회인 하나외환PGA 챔피언십오션 코스와 한국PGA투어 메이저 대회인 KB스타투어 챔피언십하늘 코스를 치르기에 코스 세팅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그밖에도 코스 디자인, 장비 관리, 정수배수 처리장 합형까지도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코스관리자를 위한 코스 디자인’을 주제로 강연한 코스설계가 송호씨는 세미나 기획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코스관리자가 골프를 하고 디자인을 이해해야 설계의 난이도와 특징을 잘 살려서 관리할 수 있다. 관리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플레이어 입장에서 코스 관리해야 한다. 스카이72의 접근은 그렇게 전문인을 키운다는 점에서 훌륭한 기획이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데 별도 비용도 안드는 만큼 골프 관련학과 학생의 겨울 특강으로 놓여도 좋을 것이라며 제임스 본부정도 화답했다. “스카이72는 (나같은) 외국인에게도 귀 기울이고 영역간 소통을 시도해왔다. 외국인이나 전문가의 강의는 장비와 시비 등이 처음엔 생소하고 어려운 영역이지만, 지식은 나눌수록 익숙해진다. 골프장도 그런 전문인이 많아야 발전한다.”

겨울철 코스는 한가하다. 영하로 내리간 그린은 얼어있고 퍼어웨어는 군데군데는 조치가 되어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1월의 스카이72 동계세미나에서 골프장 총사장의 브레인스토밍의 열기는 뜨거웠다. 야구나 축구에서 한 시즌의 성패는 전지훈련에서 나온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스토브리그다.

스카이72 동계세미나는 코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모판이었다. 외국인 강사뿐만 아니라 코스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는 자신의 지식을 소통하는 무대였다. 골프장의 스토브 시즌은 그렇게 학구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내년에는 세미나 참여자가 더 많아질 것 같다. ☺

외국인이나 전문가의 강의는 장비와 시비 등이 처음엔 생소하고 어려운 영역이지만, 지식은 나눌수록 익숙해진다. 골프장도 그런 전문인이 많아 발전한다. - 제임스 본부사



세미나 열리는 동계세미나 대면회장의 열기가 뜨겁다.